

✓ 1. 설명 포함 강조 모드

✓ **형태소와 음운 구별** - ✓ 음운: 의미를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단위 (예: ㄱ, ㅌ, ㄴ) - ✓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예: '나무', '들', '이') - ✓ **실질 형태소(★의미 有) vs 형식 형태소(★문법 기능)**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 **형식 형태소와 발음 변화** - 형식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 → 앞 단어 끝소리와 만나 소리 변화 발생 - 예: "구이" → "구지" / "도+이" → "도지" ※★★형식 형태소에서 발음 변화, 시험!!★★※

✓ **음운 변동의 종류** 1. ★ 구개음화: 'ㄷ, ㅌ' + '이' → 'ㅈ, ㅊ' (예: '같이' → '가치') ※★★초빈출★★※ 2. ★ 된소리되기: 예상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뀜 (예: '국밥' → '국빡') ※★★반드시 암기★★※ 3. ★ 비음화: 비음(ㄴ, ㄹ) 앞에서 자음이 비음으로 바뀜 (예: '국물' → '궁물') 4. ★ 유음화: ㄴ+ㄹ → ㄹ+ㄹ (예: '신라' → '실라') 5. ★ 자음 탈락: 겹자음 중 하나가 탈락 (예: '값+이' → '가시') 6. ★ 모음 축약: 두 개 모음이 하나로 줄어듦 (예: '되어' → '돼') ※★★혼동 주의★★※ 7. ★ 모음 탈락: 같은 모음이 이어질 때 하나가 탈락 (예: '가아서' → '가서') 8. ★ 자음군 단순화: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 (예: '읽다' → '익따') ※★★기출됨★★※

✓ **표준 발음법 주의사항** -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꽃향기 → 꼬챙기)는 꼭 암기 - 표기에 반영되는 변동 vs 반영되지 않는 변동 구분 - ★ 시험 출제 포인트는 "교과서 + 프린트 문제" 기준 ※★★선생님이 강조함★★※

✓ **중요 개념 요약** - ★ 형태소는 뜻 단위, 음운은 소리 단위 - ★ 형식 형태소가 음운 변동을 유발함 - ★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비음화는 자주 나옴 - ★ '같이', '국물', '읽다', '되어', '가서' 예시는 꼭 외우기 ※★★실전 문제 자주 출제★★※

✓ 2. 완전 기록 모드

애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지? 형태소 이야기했죠? 형태소가 뭐라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그치?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야. 예를 들어 '말'과 '발', 이건 초성 하나 차이로 의미가 확 바뀌니까 'ㄹ'과 'ㅂ'은 각각 음운이 되는 거야.

근데 '말'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고, '들', '이'처럼 쪼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위는 다 형태소야. 그중에서도 실질 형태소는 의미가 있는 거, 형식 형태소는 조사나 어미처럼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형식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앞 단어랑 만나서 소리 변화가 일어나~ 예를 들어서 '같이'는 '갈+이'인데 '가치'로 발음되잖아. 이게 바로 구개음화야. ★이거! 시험!!★

또 중요한 거 있어. 된소리되기! '국밥'이 '국빡' 되는 거, '값+이'가 '가시' 되는 거, '읽다'가 '익따' 되는 거, 다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특히! '되어'가 '돼' 되는 거, 이거는 모음 축약이라고도 하고 반모음화라고도 하는데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 리듬대로 따라 읽어봐요★★※

비음화는 비음 앞에서 바뀌는 거야. '국물'이 '궁물' 되는 거지. 유음화는 '신라'가 '실라'. 이것도 우리말에서 엄청 자주 일어나는 변화니까 반드시 체크해 둬야 해요!

그리고 시험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 나와요.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문제도 같이 꼭 복습하고! '꽃향기' → '꼬챙기' 같은 건 무조건 외워야 돼. 왜? ★진짜 시험에 나와요!!!★

표기에 반영되는 변동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된소리되거나 모음 탈락처럼 실제로 쓰는 말과 적는 말이 다른 것들 구분 잘 해 줘야 해요.

결론은? ★형식 형태소가 음운 변동을 일으킨다!★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자음군 단순화, 다~ 시험 범위야. 프린트 + 교과서 = 끝판왕!! 꼭 풀어보고 오기!

필요하시면 PDF로 저장해 드릴게요!